

‘트윈 타워’ 적응 완료...4년차 막내 페퍼스 탈꼴찌 희망

〈장위·자비치〉

컵대회서 박정아 56득점...장위, 현대건설 상대 공격 성공률 67% 과시

장단 4년 차를 맞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 시즌 목표인 ‘탈 꼴찌’에 성공할 수 있을까.

페퍼스는 지난 3일 GS칼텍스와의 예선 마지막 경기로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장소연 감독 체제로 첫 실전에 나선던 페퍼스는 이번 컵대회에서 3전 전패(승점 1)를 기록하며 4강 앞에서 좌절했다.

지난달 29일 현대건설전 2-3패,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전 1-3패에 이어 3일 GS칼텍스전 0-3패다.

페퍼스는 아시아쿼터 1순위 장위(196cm)와 외국인 드래프트 1순위 바르바라 자비치(191cm)의 영입으로 타 구단과 견줄 수 없는 높이를 구축했다.

‘트윈 타워’ 자비치와 장위는 이번 컵대회에서 각각 최고 23득점(도로공사전), 14득점(현대건설전)을 올리는 등 든든한 외국인 용병으로서 팀에 힘을 보였지만, 자비치는 컵대회 마지막 경기인 GS칼텍스전에서 1-2세트 출전한 가운데 4득점에 그치는 등 적응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페퍼스는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규리그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다.

지난 4월 사령탑에 오른 해설위원 출신의 장 감독은 이번 컵대회를 통해 ‘감독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지난달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페퍼스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겠냐’를 확인하는 게 이번 컵대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반응을 도모하는 ‘만년 꼴찌’ 페퍼스의 이번 컵대

회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장 박정아는 명실상부 V리그 여자부 최고 공격수답게 이번 대회에서 총 56점을 따냈고, 장위는 빠른 발과 높은 타점으로 현대건설전에서 공격 성공률 66.67%를 자랑했다.

페퍼스는 지난 2023년 구미 대회에서 30.94%의 팀 공격 성공률을 보였지만 이번 통영 대회에서 33.83%의 공격 성공률을 올렸다.

또 구미 대회에서는 19.11%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면서 팀 순위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에서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와 이에림의 활약으로 리시브 효율 28.29%, 안정적인 수비를 만들어 냈다.

박정아는 그간 공격력에 비해 리시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으로 평가돼 왔다.

장 감독은 이번 컵대회에서 박정아의 대각에 아웃사이드 히터 이에림을 배치해 수비력을 높임과 동시에 팀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페퍼스는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유인분선수로 공식된 이에림을 영입했다.

지난 2023-2024시즌 개인 최다 103득점과 36.60%의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44.08% 등을 기록한 그는 이번 컵대회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며 팀 전력 강화에 한 몫 했다.

한편, 2024-2025 V리그 개막을 앞둔 페퍼스는 22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의 개막전으로 정규리그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25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오는 22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의 개막전으로 2024-2025 V리그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 3일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예선’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기합을 넣고 있는 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

‘장소연호’ AI페퍼스, 2024-2025시즌 출정식

9일 페퍼스타디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2024-2025시즌 V리그를 앞두고 힘찬 각오를 다진다.

페퍼스는 오는 9일 오후 2시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2024-2025시즌 출정식 ‘BRAND NEW PEPPERS’를 개최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출정식은 신인 선수들을 제외한 이번 시즌 등록 선수 전원과 장소연 감독이 참석한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신규 멤버십 구매자와 일반 팬 300여명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올 시즌 팀 슬로건인 ‘TOGETHER AS ONE TEAM’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팀 슬로건에는 장소연 감독이 강조해 온 ‘하나, 원 팀’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출정식은 시즌 오프닝 영상 공개, 선수단 인사, ‘TOGETHER AS ONE TEAM’ 퍼포먼



스, 장소연 감독과 주장 박정아의 출시표 발표, 토크 콘서트 순으로 실시된다. 출정식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롯데아울렛 광

주월드컵점 메인 출입구에서는 박정아-한다혜-장위의 미니 사진회와 함께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가을 여왕’ 김수지,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김수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가을 여왕’의 귀환을 알렸다.

김수지는 6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2오버파 74타를 적어냈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인 합계 2언더파 286타를 친 김수지는 KLPGA 통산 여섯 번째이자 세 번째 메이저 우승을 달성하며 상금 2

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수지는 2021년부터 9월과 10월에만 다섯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가을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작년 8월 메이저대회 한화 클래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우승한 김수지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는 2021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3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수지는 전반에 보기 2개, 버디 1개로 1타를 잃었고, 10번 홀(파5)과 12번 홀(파4)에서도 보기를 적어내 추격자들에게 공동 선두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김수지는 14번 홀(파4)에서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 다시 단독 선두에 오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16번 홀(파3)에서는 버디 퍼트를 넣어 2위 그룹 선수들과 격차를 3타로 벌렸다. 한결 여유를 가진 김수지는 18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이 페어 웨이 디보트에 빠지는 바람에 그린을 직접 노리지 못하고 세 번째 샷을 레이업 했다. 네 번째 샷으로 그린에 공을 올린 김수지는 파 퍼트를 놓쳤지만 우승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피겨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은메달

6차대회 총점 212.43점 기록

피겨 간판 신지아(세화여고·사진)가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는 6일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4.21점, 예술점수(PCS) 59.59점을 합쳐 123.80점을 받았다.

신지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69.24점을 합쳐 최종 총점 193.04점을 기록, 1위 소피 펠덴(197.41점·미국)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올해 초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총점 212.43점으로 은메달을 땀던 신지아는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는 4위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고, 이번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신지아는 상위 6명이 출전하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6차 대회까지 4위에 올라 있는데, 마지막 7차 대회에서 경쟁자들의 결과에 따라 최종 6위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신지아는 이날 첫 번째 점프 트리플 루프, 두 번째 점프 트리플 살코를 모두 틀린 처리했다.

세 번째 점프 과제는 트리플 플립-더블 토 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예정됐으나, 트리플 플립에서 착지가 흔들리며 콤비네이션 점프로 연결하지 못해 점수를 크게 손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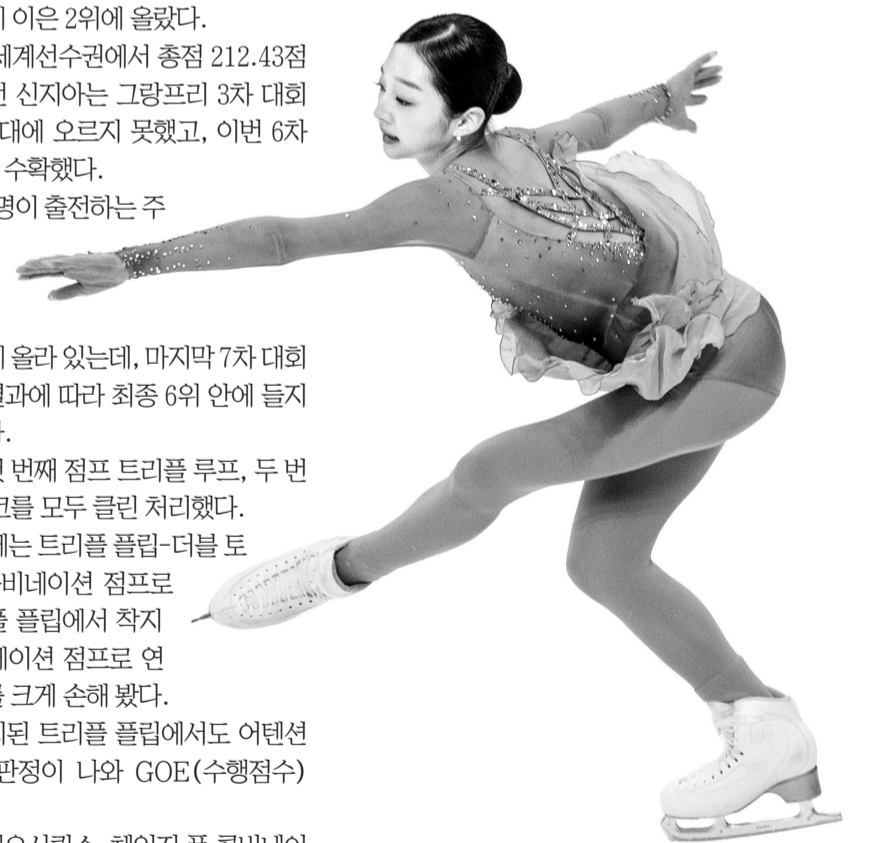
단독 점프로 처리된 트리플 플립에서도 어텐션(예지 사용주의) 판정이 나와 GOE(수행점수) 1.29점을 깎였다.

더블 악셀과 코레오시퀀스, 체인지 풋 콤비네이

션 스프인(레벨 4)을 수행한 신지아는 후반부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후속 점프 착지 중 중심이 뒤로 넘어가며 흔들렸고, GOE 0.93점이 감점됐다. 이어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선 어텐션이 나왔으나 트리플 러츠는 안정적으로 뒀었다.

이후 신지아는 플라잉 카멜 스프인(레벨4)에 이어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인(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신지아는 오는 12월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